생태학살(Ecocide)을 넘어서
-녹색분칠(Green Washing)에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으로

장 윤 석(청년기후긴급행동)

1. 서론: 한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붕앙

한국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그린뉴딜(2020.7.14.)을, 국가 목표로 탄소중립(2022.10.28.)을 내걺과 동시에 인도네시아(2020.6.30.)와 베트남(2020.10.5.)에 해외석탄발전 수출을 주도하고 승인하였다.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밥코(VAPCO)에는 한국전력, 수출입은행, 하나은행(중도하차),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등 팀 코리아로 칭해지는 한국의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은행, 기업이 참여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안으로는 녹색을 표방하면서 밖으로는 회색 투자와 사업을 일삼는 녹색분칠(Green Washing)이었다(장윤석, 2021). 기후정의 비폭력 직접행동 단체인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이를 저지하고자 해당 '사업'을 '생태학살(Ecocide)' 범죄로, 참여 기업을 '탄소오적'이라 칭하며 기후행동(Climate Action)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18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중공업이 위치한 분당 두산타워의 "DOOSAN" 로고를 녹색 수성 스프레이로 칠하고, 로고 위에 올라가 석탄 수출 중단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치는 직접행동을 수행했다. 2021년 7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해당 행동에 재물손괴와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고(2021고정593), 2021년 8월 9일, 두산중공업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2명(이은호, 강은빈)에게 1,840만 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2021가소619634). 양 차례의 소를 통해 법원과 원고 두산중공업은 기후활동가들에게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시위 행위의 형법적·민법적 책임을 묻고 있으나, 사건의 발단인 석탄발전소 수출을 추진한 기업들과 이를 방조·지원한 정부의 책임은 어느 측면으로도 물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활동과 연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현장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 활동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AYARF, 2020)'의 질문을 가지고 액티비스트리서치 방법론(Activist Research Mythology)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함께한 붕앙-2 석탄발전소 저지 기후행동을 연구 대상이자 현장으로 삼았다.

2. 본론: 붕앙을 생태학살로 살펴보기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정명(正明)하자는 제안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수용되고, 한 걸음 나아가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태학살(Ecocide)은 이러한 맥락에서 조명받고 있는 개념으로, "불법적(unlawful)이거나 악의적(wanton)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경(environment)에 심각한(severe) 동시에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손상(either widespread or long-term damage)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SEI, 2021)"한다. 해당 정의의 요건에 붕앙-2 석탄발전소는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 생태법(Ecology of Law), 생태학살 법(Ecocide Law)과 같이 환경과 법을 둘러싼 논의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현재, 현행법을 넘어 생태학살을 막고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질서를 상상하며 붕앙-2 석탄발전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소가 투자·건설·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빚어지는 온갖 착취와 재난에는, 직접적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는 물론이고, 시간과 거리를 두고 불확실하게 닥쳐오는 기후위기가 있다. 붕앙-2 발전소가 준공될 2025년부터 30년간 운영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총 2억 톤에 달해 한국 정부가 2021년 추진한 그린뉴딜 온실가스 감축분의 15배에 이른다. 베트남 중부 하띤성 붕앙-2가 지어질 대지는 갖은 환경재난으로 이미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데, 2016년 포르모사(Formosa) 제철소 유독물질 해양 유출 사건으로 베트남 역사상 최악의 환경피해를 입었고, 먼저 지어진 붕앙-1 석탄발전소의 온배수 문제도 더해져 산호초 군락이 절멸하고 인근의 해양 생태계가 심하게 망가졌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생계 수단을 모두 잃었고, 석탄재 보관 문제로 인한 수권 파괴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더해서 한국보다 낮은 배출 기준 탓에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기본적인 호흡기 질환, 심장병, 뇌졸중, 폐 질환, 피부 질환이 빈번히 발생한다. 붕앙-1 석탄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2017년~2018년 지역 보건소 조사에는 심혈관 및 뇌졸중 환자가 105명 발생했고 14명이 사망했다. 그런 가운데 추가로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재정착 관련 강제 이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확인된 피해와 파괴가 분명하고,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가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생태학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생태학살을 넘어 녹색전환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붕앙-2 석탄발전소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과 기후재판은 한국 사회에 기후행동이 시작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형사 재판에 1500여 명의 개인과 50여 개의 단체가 탄원서에 연명하였고, 두산중공업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민사재판에서 원고 두산중공업에 1840명이 연명한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저항의 과정을 통해 기후행동의 동력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말하는 '녹색 계급'의 출현이자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주목한 기후저항지대(Blockdia)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국가와 기업의 생태학살 행위를 방조하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생태와 사회를 형성하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으로 살필 수 있다. 본 연구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붕앙과 이에 대응하는 기후행동 사례를 조명하여 생태학살을 저지하고 녹색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더하여 본 연구는 액티비스트리서치 방법론에 따라 실천성을 가지고 한국이 짓는 마지막 석탄발전소 붕앙이 건설을 멈추는 때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태학살의 비극을 막는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 기후사회연구소, 2022,「환경범죄와의 전쟁 : 에코사이드」
- 김민성, 2022,『환경문제의 인권적 전환 :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논문
- 녹색연합, 2021,「국내 석탄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다」
- 마저리 켈리 외, 2019,『최후의전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윤석, 2020,「녹색 분칠에서 녹색 전환으로: 한국 기업의 아시아 생태학살」, 아야프(AYARF) 발표
- 장윤석, 2021,「마지막 석탄발전소 붕앙-2」, 생태전환매거진 바람과물
- 조효제, 2022,『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 청년기후긴급행동, 2021.9, 붕앙팀 백서(비공개)
- AYARF(Asia Youth Activist Research Fellowship), 2020, 플레이북, 다크매터랩스(Dark Matter Labs)&씨닷(C.)
- GAAM(Globa Anti Aerotpolis Movement), 2017, Airport-linked special economic zones, aerotropolis projects and the race to the bottom
- Independent Expert Panel for the Legal Definition of Ecocide), 2021, LEGAL DEFINITION OF ECOCIDE

청년기후긴급행동